

제4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공모 당선 작품소개

이 글은 당협회가 '88년도 우유 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4회 전국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응모자 5,759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학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佳作 5편, 입선작 10편, 장려상 30편 등 총48편이 당선되어 지난 호에 입선 3편을 게재하였으며 이번 호에는 입선작 3편을 소개하고, 잔여 입선작과 장려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본지에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입선

우 유 값

경북 영주국민학교
6 김민정

“애, 민정아 6월분 우유값이다. 갖고 가는길로 바로 선생님께 드려.”

하고 어머니께서는 6월분 우유값 2750원을 주셨다.

“어머니, 저 우유 그만 먹을래요.”

“왜?”

“너무 오래 많이 먹어서 맛도 없고, 먹기 싫어요.”

“애가 무슨 말을 하니, 너가 그만큼 몸이 튼튼한 것은 우유를 먹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아무 말을 못했다.
내 건강을 생각하시는 어머니의 고마움 때문에 더 말을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유를 마시기 싫었다. 다른 아이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고소하고 향긋해서 좋다는데 나는 웬일인지 능글하고 땡땡해서 도저히 먹기 싫었다.

학교길에서 우리 반 미경이를 만났다. 내가 지갑속에 넣어가지고 가는 돈을 본 미경이는

“너 우유값 갖고 가는구나. 오늘이 우유값 내는 날이니…….”

하고 말했다.

“너, 참 용하게 아는구나. 우유도 먹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걸 다 아니?”

하고 내가 말하니

“척 보면 다 알아.”

미경이는 어느 코미디언의 흉내를 내면서 말했다.

“애, 미경아 그런데 말이야, 난 우유가 먹기 싫어 죽겠어.”

하고 내가 말하니

“아유, 행복한 소리도 하네. 난 우유가 먹고 싶어 죽겠어.”

하고 미경이는 말했다.

“그럼 먹으면 되지 않니?”

하고 내가 말하니

“어디 돈이 있니?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우유를 먹을 수 없단다.”

하고 미경이는 말했다.

“애, 미경아, 이돈 너한테 줄테니, 이번 6월달엔 내 대신 너가 우유를 받아 먹어다오.”

“애, 너 이상한 소릴 다 하는구나. 남의 돈으로 어떻게 내가 우유를 받아 먹어…….”

“미경아, 넌 내 친구잖아. 친구끼리 그럴수도 있지 뭐. 그러니 너 이돈 받아.”

하고 나는 안 받으려는 미경이 손에 억지로 돈을 쥐어주었다.

“너 정말 이래도 괜찮은거니?”

미경이는 미심다와 하면서 또 미안하고 고마워 하면서 지체없이 돈을 받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 오후였다. 내가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는 화난 얼굴로

“너 이리좀 와 봐.”

하시면서 나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나의 가슴은 ‘덜컹’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제 우유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는 모양이야.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며 어머니 앞에 앉으니

“넌 어디 돈이 많아서 남에게 우유까지 마시게 하고 있니?”

어머니는 날카롭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무 말을 못했다.

“왜 말을 못해. 어떤 이유로 미경이 우유값을 주었어?”

“예, 미경이는 나하고 친한 친구인데 무척 우유를 먹고 싶어 하길래…….”

하고 내가 말하니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 우유값을 주었던 말이지… 네가 불쌍한 친구를 도와준 것은 매우 잘한 일이야. 그러나, 어머니를 속인대 대해서는 용서 할수가 없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초리를 갖고 오라고 하셨다.

“어머니, 제가 잘못 했어요. 다시는 그런일 없을 거예요.”

하고 나는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다.

“응. 정 그렇다면 오늘은 용서 해주지. 그러나 너가 우유를 마시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든지 하면 어머니께 큰 벌을 받을줄 알아. 자 이건 6월분 우유값이야. 내가 선생님께 전화해 놓았으니 늦었지만 받아 주실거야.”

어머니는 또 6월분 우유값 2750원을 내 주셨다.

“미경이에게 준 돈은 어찌하구요?”

하고 내가 말하니

“그건 너가 불쌍하다고 도와준 것 아니니, 미경이도 앞으로는 우유를 받아 마실수 있도록 어머니가 우유값을 내 주겠어.”

하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다.

그 이튿날 내가 학교에 가니 미경이는 미안하며 돈 2750원을 내미는 것이었다.

“애. 미경아, 어떻게 된 일이나? 우리 어머니께서 알게 되었으니...?”

하고 내가 말하니

“응. 그건 내가 집에 돌아가서 정직하게 어머니께 이야기 했더니 어머니께서 세상에 고맙기도 해라 하시면서 너의 어머니께 전화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 뭐니.....”

하고 미경이는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유값을 받을 수 없다며 어머니께 돌려주라고 했어.”

미경이는 이렇게 말하고 우유값을 내미는 것이

었다.

“아니야. 우리 어머니께서 너도 앞으로 나와같이 우유를 계속 받아 마실 수 있도록 우유값을 주신다고 했어.”

하고 내가 말하니

“아니, 그게 정말이니?”

하고 미경이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 보았다.

“따르릉. 따르릉.....”

미경이와 나는 손을 잡고 첫째시간을 맞이하기 위해 교실로 들어갔다.

입 선

보 약

부산교육대학 부속국민학교

5~2 최 윤 석

석이 학교는 영양 급식 학교이다.

매일 둘째 시간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가벼운 무용을 하고 운동장을 두바퀴씩 돌고 난 후, 교실에서 시원하고 고소한 보약을 마신다. 그리고 빈통을 납작하게 접어서 우유 운반 통에 담아서 제 자리에 갖다 놓는다.

그런데 며칠동안 쓰레기 통과 심지어는 하수구에 우유통이 뒹굴고 있었다.

토요일 어린이 시간이었다. 생활부장이,

“혹시 우리 반 어린이 중에서 우유를 마실 시간에 마시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마시고 함부로 우유통을 버리는 어린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정해진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합시다.”

이어 급식부장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유통을 모을 때, 가지런히 놓아 주십시오. 그럼 매일 우유통을 세어 확인하겠습니다.”

석이는 걱정이 되었다.

우유를 마시며, 생글생글 웃는 동생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집에만 가면 오빠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빠의 가방을 뒤흔리는 동생의 모습이 떠올랐다.

언젠가 선생님께서

“이 우유를 마시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때 석이는

“우유는 종합 영양 식품입니다. 이 우유를 먹으면서 이렇게 우유를 만들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상규가

“젓소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자, 교실안이 온통 웃음 바다가 되었다. 석이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바보가 되는것 같아 살며시 일어나 친구들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

“네. 상규 말처럼 젓소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젓소들이 산과 들을 다니면서 우리의 자연 속

에 있는 산나물, 약초 등 온갖 풀들을 다 뜯어 먹고 고소하고 하얀 젓을 만들어 우리의 영양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가 내 목으로 넘어가기 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젓소도 고맙고, 우유가 내 손에 오기까지 일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였더니,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빙그레 웃으셨다.

상규가 뒷머리를 만지면서 일어나

“윤석이에게 미안합니다. 우유를 보니, 갑자기 넓은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젓소가 생각나 통명스럽게 이야기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말하자. 온 교실에 갑자기 웃음과 박수가 가득 쌓였다. 창 너머 나무들이 고개를 내밀며 기웃 기웃 교실 안을 들여다 보았다.

선생님께서

“우리 강산의 갖가지 신비한 약초를 찍은 젓소의 젓이 우유가 되어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는 어린이들에게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우유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정한 시간에 우유를 마시고,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가 됩시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요, 튼튼한 몸입니다.”

그날부터 석이는 우유를 마시지 않고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지고 가 동생에게 주었다.

좋아하는 동생의 모습이 교실에서 친구들이 우유를 마시는 시간에 침을 삼키면서 참을 수 있었다.

몇 주일이 지나자, 버즘 핀 동생의 얼굴이 뽀얗게 포동포동 해졌다. 그 예쁜 얼굴 모습이 떠오르자 도저히 교실에서 우유를 마실 수가 없었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전 하루 생활의 반성 시간에 급식부장이 일어나

“선생님. 빈 우유통 하나가 모자랍니다.”

하였다. 모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석이는 가슴이 덜컥하였다.

“혹시, 아직 우유를 안 마신 어린이가 있으면 손 들어 봐요.”

하신 선생님 말씀을 듣고도 석이는 손을 들 수가 없었다.

친구들이 석이 집이 가난하여 동생에게 우유를 줘야 하는 사실을 알까봐 걱정이 되었다. 이어 선생님

“그럼 우유를 다 마시고 빈 우유통을 이 상자에 가지런히 내 놓은 어린이는 일어서 보세요.”

하셨다.

그때 석이는 머뭇머뭇하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석이 반 어린이들은 빈 우유통을 찾느라고 온 교실을 뒤졌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책가방을 책상 위에 올리세요.”

선생님은 일일이 가방과 책상 속을 보셨다.

석이는 가방 속에 들어있는 우유를 생각했다. 가방 속에 들어있는 우유가 어디로 멀리 날아가 버린다면 석이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급식부장이 이야기했을 때 벌떡 일어나 배탈이나 우유를 먹지 않고 가방속에 넣어 두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

선생님은 일일이 책상속과 가방을 보셨다.

드디어 내 앞에 선생님이 서셨다. 내 책상 속을 보시고 가방을 여셨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지나셨다. 그 순간

“선생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애들아, 우유통을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구나.” 하셨다. 석이는 가방 속을 열어보았다. 미운 우유통이 석이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석이 반 친구들은 언제나와 같이 어미 닭을 따르는 병아리처럼 교문 앞에서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헤어졌다. 그러나 석이는 도저히 그대로 집으로 갈수가 없었다. 친구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 보다가 선생님을 찾아 교실로 향했다.

“선생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석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선생님 말씀을 기다렸다. 그리고 우유에 얼킨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난 후.

“석아, 동생을 생각하는 너의 가룩한 마음은 어

면 상으로도 칭찬할 수 있는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 너의 용기없는 행동은 큰 잘못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언제나 뚝뚝하고 당당한 석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 선생님 품 속에 와락 안겨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 드리고 싶었다.

“석아, 어릴때 우유를 마시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 우유를 못 마시는 경우가 있단다. 선생님은 우유 마시는 시간이 고통스럽단다. 복숭아를 먹으면 온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듯이 선생님은 어릴 때, 우유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유를 마시면 가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단다. 우유가 훌륭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생님은 우유를 마실 때마다 걱정이 된단다. 너와 너 동생이 선생님처럼 되어서는 안되겠지?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단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우유처럼 골고루 갖춘 식품은 없단다. 오늘부터 너는 선생님의 젖을 먹듯이 내 우유를 마시고, 너의 우유는 하루도 빠지

지 말고 동생에게 주도록 하여라.”
하셨다.

선생님의 큰 꾸중을 기다리고 있던 석이는 갑자기 온 몸에서 뜨거운 경련이 일어났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였다.

“석아, 자. 이 우유를 꼭 마시고 우유를 기다리는 동생을 향해 빨리 달려 가야지.”

석이는 돌아서서 시원하고 고소한 우유를 단숨에 마시고 감사합니다.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교실문을 나갔다. 선생님은 석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 석이와 선생님의 두 눈이 마주치자 온화하고 다정한 빛이 번개치듯이 피어났다.

석이는 힘차게 솟아올라 바람을 일으키는 히말야시타를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하여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반드시 다달이 아니 더 자주 보약을 사들고 선생님을 찾는 모습을 그려 본다.

갑자기 석이는 두 손을 올리고 동생을 향해 힘차게 달려갔다.

의 선

고마운 우유

제주도 서귀포시 예레국교

6~2 오 승 미

우리 학교는 우유급식을 받고 있다. 2교시가 끝나면 우리는 우유를 마신다. 모두들 맛있게 먹는다. 그런데 우리반에는 우유급식을 안 받고 있는 아이가 있다. 그 중에서도 내 짝 경자도 우유를 받지 않고 있다. 경자는 우리 반에서 가장 불쌍한 어린이이다.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자식을 키우시기 때문에 늘 가난하다.

경자는 가끔 빈혈로 쓰러진 적도 있었다. 그래

서 우리반은 경자를 위해서 돈을 모으기로 했다. 아이들도 모두 찬성하여 지금 우리반 저금통에는 8400원이 모아졌다. 그 돈으로 앞으로 경자에게 우유급식을 받게 해 줄수가 있었다.

그러나 경자는 우유가 먹기 싫다는 것이었다. 나는 속상해서 울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때의 일이었다. 경자가 갑자기 ‘퍽’ 쓰러지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우리가 경자에게 달려가니 경자는
“나는 죽기가 싫어.”

하면서 우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경자는 자기 병이 죽을 병인
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우리는 다시 경자에게 우유를 받으라고 말했다.
선생님께서도 경자에게 우유를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
았다.

그때부터 우리반의 우유 받는 사람이 한 명 늘
어났다. 우리 반 모두 기뻐했다. 전에는 우리 우유를
나누어서 경자에게 주면 먹지 않고 쏟아 버려서
경자가 미웠는데, 이제는 우리랑 같이 우유를 마
시고 있어서 다행이었다.

경자네 동생 복자도 우유를 받을 수 있으면 좋
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경자가 우유를 계속 먹으면 뼈뼈 마르던 몸이
살이 톡실톡실 찌고 몸무게도 많이 늘어 건강한
어린이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 우유가 고마워 졌다. 우유는
경자같은 몸이 약한 어린이에게는 특히 좋겠지만
우리 건강한 어린이들에게도 좋다. 우유속에는 우
리 어린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영양분
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어린이들은 키가 조금 작은 편이다.
우유를 열심히 마시면 앞으로 몇년후에 많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죽기가 싫어.”

라고 되풀이 하던 경자도 기운을 되찾아 우리하고
즐겁게 놀수 있을 것이다.

“우유야 고마워.”

나는 마음속으로 우유의 고마움에 감사했다.

